전북 스타트업, 경진원과 함께 중동으로 간다

경진원, 중동 진출을 위한 'BIBAN 2024' 및 'SRTIP Private IR' 추진

전북을 대표하는 혁신 기업들이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잡았다.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도내 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1월 5일부터 11일까지 중동지역에서 'BIBAN 2024(이하 비반)' 및 'SRTIP Private IR'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진원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동 시장으로의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비반은 사우디아라비아 중소기업청이 주최/주관하는 국제 스타트업 박람회로, 2017년에 시작되어 2023년부터 국제행사로 확대되었다. 올해 행사는 11월 5일부터 9일까지 사우디 리야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약 14만 5천 명의 참관객과 127개국 1,200여 개의 기업, 350명의 연사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중동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기업박람회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피칭 경연대회 'EWC', 스타트업 전시 및 콘퍼런스, 강연 등이 있다.

SRTIP은 아랍에미리트의 세 번째 토후국인 샤르자에 위치한 중동 지역의 떠오르는 유망 혁신 클러스터이다. SRTIP은 샤르자의 지식 기반 경제 전환을 위한 연구 및 혁신 허브로, 국제 기업 및 스타트업, 학술 기관을 유치하여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 경진원은 SRTIP과 함께 도내 기업의 IR 진행, MOU 체결 등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경진원은 이번 협력을 통해 도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동 시장으로의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비반 행사에는 '전북관'이라는 이름으로 ㈜다이나믹인더스트리 등 10개 사가 참여한다. 전북 특색을 담은 바이오 기술, 첨단소재, 화장품 등 제품들로 중동 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혁신 제품을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진원은 비반 박람회와 SRTIP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스타트업들이 중동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사우디 식약청(SFDA), 중기청 등 사우디 정부 기관과의 미팅, VC Meet-up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도내 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고 중동 지역과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경진원 윤여봉 원장은 "이번 중동 현지 행사를 통해 도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및 시장 진출 기회를 확보하고,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중동 지역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제적인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농촌진흥청, aT와 손잡고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알리기 앞장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소개 · 수출지원계획 설명회' 개최

25일 농촌진흥청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은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이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에게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이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와 함께 농업 기반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수출업체와 생산 농가에 신품종을 소개하고, 지속 가능한 수출 지원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25일, 본청(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는 배, 포도, 키위 수출통합조직 등 생산 농가와 수출업체 15개 사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농촌진흥청이 개발해 농가에 보급 중인 다양한 신품종 가운데 △배('그린시스', '신화') △포도('젤리팝', '썸머크리스피' 등) △키위('스위트골드', '감황') △마늘('홍산')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신품종들이 수출될 수 있도록 생산지원부터 수입상(바이어) 알선, 해외 판촉(마케팅)까지 수출 전 과정에 걸친 지원 방안 등을 알기 쉽게 상세히 설명하며 수출업체와 생산 농가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싱가포르와 베트남의 신선 농산물 수입상(바이어)과 온라인으로 연결해 사전에 우리 측에서 제공한 신품종에 대해 평가 의견을 들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생산 농가, 수출업체와 현지 수입상이 실시간으로 생생한 의견을 교환하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내년부터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신품종의 해외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해 인기 품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산기술 지원부터 수입상 알선, 해외 판촉까지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권재한 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우수한 신품종을 육성하고,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수출농산물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연구에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홍문표 사장은 "기후변화 위기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 농업·농촌이 마주한 현실이다"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 기관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우수 신품종이 국내 보급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널리 보급·수출되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유해남조류 세포수 급감… 전북환경청, 옥정호 유역 조류경보 24일 '해제'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지난 24일 오후 3시를 기해 옥정호 유역에 발령된 조류경보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옥정호는 지난 9월 5일 조류경보 '관심' 단계 발령 이후, 최근 유해남조류 측정 결과 세포수가 '관심' 단계 해제기준(2회 연속 유해남조류 1,000세포/㎖ 미만)에 이르러 조류경보 '해제'를 발령하게 되었다.

이는 지속적인 오염원 관리 및 조류제거활동과 더불어 최근 기온이 하락함에 따라 평균 수온이 20℃ 이하로 유지되면서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조류경보 발령이 해제 되었더라도 취·정수장 및 수질오염원 관리 등 기관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기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25일 케어팜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치유의 쿠킹클래스'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K푸드 가치 · 우수성 체험

바이오진흥원, 케어팜 발달장애인들과 '치유의 쿠킹클래스' 체험행사 진행

내달 10개 장애인 단체와 김장체험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케어팜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치유의 쿠킹클래스' 체험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쿠킹클래스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행사기간 동안 진행되는 음식문화대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발효식품을 활용한 음식 체험을 통해 지역사회 상생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사)전주시장애인부모회 등 3개 도내지역 장애인단체와 함께 진행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임실치즈 샌드위치 만들기를 통해 발효식품의 매력을 체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K-푸드의 가치와 우수성을 경험하였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우리는 단순히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그치지 않고, 발달장애인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참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오진흥원은 2021년부터 케어팜 발달장애인들과의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 이어 오는 11월에는 10개의 장애인 단체와 함께하는 김장체험 행사가 예정돼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 · 군산 JB문화공간, 개관 5주년 기념 가을 음악 축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후원하는 JB문화공간이 지난 23~24일 전주와 군산에서 KBS FM '재즈수첩'의 진행자 황덕호와 함께 하는 '해설이 있는 재즈 콘서트3'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JB문화공간 개관 5주년을 기념하며 가을 음악 축제의 첫 공연으로 마련됐다. '재즈와 함께 하는 가을의 정취'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연에서는 이부영(보컬), 박윤우(기타), 여현우(클라리넷 · 색소폰)로 구성된 재즈 밴드 '이부영 트리오'가 초대돼 250여명의 관객들을 만났다.

몽환적이면서도 감각적인 무대로 평단과 관객의 찬사를 모두 받고 있는 '이부영 트리오'는 가을을 예찬한 재즈 스탠다드 넘버들을 다채롭게 들려주었다.

이부영의 농도 짙은 고품격 보컬과 기타, 클라리넷의 서정적 음색까지 더해져 10월의 밤이 낭만으로 물들었다.

황덕호 재즈칼럼니스트는 "이번 재즈 렉처 콘서트는 특별히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넘버들을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